

---

第5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 本會議會議錄 開會式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2年6月30日(火) 午後3時 開式

---

第55回서울特別市議會(臨時會)開會式順

1. 開式

1. 國旗에 대한 敬禮

1. 愛國歌 齊唱

1.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

1. 開會辭

1. 閉式

(司會 議事擔當官 朴命鉉)

---

(15時 16分 開式)

○議事擔當官 朴命鉉; 지금부터 第55回 서울特別市議會 臨時會 開會式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國旗에 대한 敬禮가 있겠습니다, 모두 壇上의 國旗를 향하여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一同起立)

(國旗에 대한 敬禮)

다음은 愛國歌를 齊唱하시겠습니다. 전주곡에 따라 1節만 齊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愛國歌 齊唱)

이어서 殉國先烈 및 戰歿護國勇士에 대한 默念이 있겠습니다. 一同默念!

(一同默念)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長님의 開會辭가 있겠습니다.

○議長 金璨會;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제 55회 임시회가 개최되는 이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상배 서울특별시장과 김상준교육감을 비롯한 관련공무원과 서울시민 여러분!

이번 제55회 임시회는 지난 1년 동안의 의사운영과 의정활동의 거울삼아 앞으로 시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정립하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는 각종 의안들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지난 제54회 임시회 개최이후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개별적으로 지역주민과 활발한 대화를 나누셨고 시정이 집행되는 현장을 방문하셔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위원회별로는 자체모임을 가지는 등 개최기간중에도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하여 의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1년 7월 8일 민주주의 정착의 디딤돌이자 풀뿌리민주주의로 일컬어지는 지방자치의 성공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짐하면서 시의회 의사당에 들어선 이래 벌써 1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평가하여 볼 때 61년 지방자치제의 중단이후 30여년 동안 관위주로 집행되던 행정에서 탈피하여 지역주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132명의 의원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잘못된 행정집행은 바로 잡고 개선되어야 할 분야는 해결방향을 모색함으로써 서울시민의 권익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던 1년이 아닌가 합니다.

그러나 개원이후 시의회를 운영하여 오면서 의회운영에 관한 선례가 부족하였고 경험도 충분히 축적되지 않았기에 개원초기에는 시행착오가 없지 않았습니다. 또한 지방자치 관련

현행 법령 및 제도상의 여건이 실질적인 주민자치를 정착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어 왔습니다. 지방자치를 그 취지와 정신에 맞게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중앙 정부, 집행부, 언론, 시민 및 시의회가 제약여건을 개선하고자 하는 공동의 노력이 요청된다고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는 사실상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역여건과 실정에 맞는 행정집행을 펼침으로써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뜻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는 민주행정, 봉사행정을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제의 성공적이고도 바람직한 운영은 이 시대 우리 모두에게 부여된 역사적인 과제이며 함께 나누어야 할 책무로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는 개원이후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과 의회운영에 대하여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는 평가를 토대로 우리 서울시의회에 부여된 본연의 역할을 더욱 내실있게 수행하여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의사당내에서의 민주적이고도 합리적인 토론문화의 정착, 신중하고도 전문성을 발휘하는 의안의 심사, 시정의 현안과제들에 대한 해결방향의 제시, 시민들이 겪는 불편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해결 노력 등은 우리 시의회가 시민들의 사랑을 받고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시민들과 함께 호흡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시의회 개원 1년을 맞이하여 개최되는 이번 제55회 임시회가 시의회 운영에 있어서 새롭게 도약하는 발전의 계기가 되어 성숙된 의회운영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개최에 따른 인사의 말씀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議事擔當官 朴命鉉; 이상으로 제55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

회 개최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5時 24分 閉式)

---

○議長 金璨會;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개최에 앞서 새로 취임하신 이상배 서울특별시장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편의상 좌석에서 하겠습니다.」 하는 議員 있음)

(장내소란)

진행은 시장 인사듣고 하죠.

(장내소란)

○서울特別市長 李相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장내소란)

○議長 金璨會; 앞으로 의회에서 시장을 상대로 정책질의할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하시도록 하고 오늘 시장이 처음 부임인사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것이니까 인사는 받으시고 하는 것이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앉아주세요.

○서울特別市長 李相培; 존경하는 金璨會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제가 지난 6월 26일 시장으로 부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우리 시의회에서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면서 새로운 다짐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난 해 7월 8일 역사적인 시의회의 개원이래 지난 1년여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속에서도 성공적이고도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가적으로 통일여건이 그 어느 때보다도 성숙되어 가고 민주화, 자율화, 자치화 추세와 더불어 국가경제의 활력회복이 시급히 요구되며, 우리 서울시정에 있어서도 시정발전에 중요한

轉機가 될 서울정도600년을 2년 앞둔 중요한 시기에 1,100만 수도권행정의 중책을 맞게 되어서 걱정이 앞서고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서울시정은 교통, 쓰레기, 환경, 저소득시민의 보호 등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당면한 현안과제들이 모두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당면과제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과 진지하게 상의하고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속에 5만 4,000여 시공무원들이 진솔한 자세와 성실로써 일해 나간다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나하나 해결되어 나갈 수 있으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특히, 시민의 대표인 의회와 집행부인 시는 수레의 양바퀴가 되고 1,100만 전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마치 한강의 튼튼한 양 뚝처럼 서로 신뢰와 존중속에 시정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공동책임자로서 지방화, 민주화 시대에 걸맞는 자치행정을 굳건히 정착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뜻에서 저는 앞으로 시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찾아 다니면서 그 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이고, 어려운 곳이 어디인가를 찾아 내어서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생각하며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저를 포함한 시공무원들은 시민의 기대에 어긋나거나 눈밖에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시민의 편익을 위하는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서 해결하는 진취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자세로 시민일상생활의 주변을 찾아 나서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우리의 이러한 노력을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시민은 지난 70년대와 80년대에 수많은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면서 세계사에 길이 빛날 서울올림픽의 영광을 창조해냈습니다. 이러한 긍지와 자랑을 바탕으로 다가오는 2000년대에 보다 더 살기좋은 서울이 되도록 우리 모두 노력해서 통일조국을 위한 영원한 수도로서의 기반을 굳건히 다지며, 세계속의 중심도시로서 우리의 위상을 높여나가도록 정성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비롯한 전 시공무원들은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며 자주 만나서 솔직하게 시정을 상의드리고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자신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습시다만 오로지 시정발전을 위해서 제 나름대로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저의 열정을 쏟아 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의원님께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서울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여러 의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저의 취임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이어서 지난 제54회 임시회 이후에 인사이동된 저희 시의 중요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 기획관리실장 강덕기, 상수도사업본부장 이기창, 공무원교육원장 이원택, 내무국장 전명호, 문화관광국장 박종옥, 교통국장 김진호)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